

“선거법 반드시 개정하겠다”

재임된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11월 9일, 제14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15대 중앙총회 의장에 선 출된 보선 스님(사진)이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총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4대 총회에서 개정하고 싶었으나 처리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다. 제15대 총회 전반기에는 이들 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겠다”며 전반기 총회운영 기조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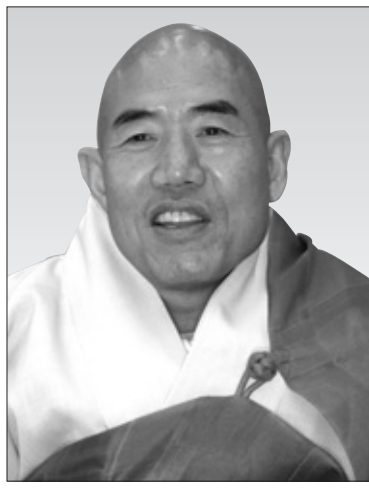
보선 스님은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총회의원스님들의 상임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을 장려해

총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총무원을 견제·비판하는데 충실히 하겠다”고도 밝혔다.

여건상 회의를 자주 열기 어려운 총회 본회의를 대신해 각각의 의원들이 그룹을 이뤄 안건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스님은 “총회의원 대부분 각 교구별 혹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다.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뜻을 받드는 역할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종도와 사찰의 민심이 더 크게 총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책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총회 부의장에 선출된 모 스님 등 총회의원의 자질시비에 관련해 보



선 스님은 “중앙총회의원에 당선된 이상 중앙총회의원이다. 선관위, 총무부, 호법부 등 관련기관의 처리를 지켜보겠다. 다만 의원들의 문제제

기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4대 총회에서 일부 의원스님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총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던 것에 대해 스님은 웃음과 함께 “대중공사 하던 풍도가 본회의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선 스님은 “당사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받은 이상, 앞으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 진행을 할 것이다. 재발시 총회운영규칙에 따라 엄정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대해 스님은 “그런대로 잘 치러졌다. 이만하면 깔끔하게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종단과 사부대중 법익증진 서원”

제15대 중앙총회 개원·총회의장단·상임위 등 구성

제15대 중앙총회가 11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총회의원들은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중현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것을 삼보 전에 맹세한다”고 선언했다.

중앙총회는 이날 제185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중앙총회는 79명 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전반기 총회의장으로 제14대 후반기 총회의장을 역임한 보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 총회부부장에는 정목 스님, 차석 총회부부장에는 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사무처장은 성호 스님이 선출됐다. 이어 각 상

임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3년 만에 종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종정감사 특위를 구성했다. 지현 스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185회 본회의는 종정감사로 16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불기2555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원로 의원 선출의 건 △법규위원회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등 20개 안건이 다뤄 예정이다.

〈상임분과위원 명단〉

●총무분과위 주경(위원장) 윤성 일 관 무관 해일 오심 제정 성우 월공

●교육분과위 범안(위원장) 정원 성 행 영배 도정 정인 일진 계한 상덕 스님

●포교분과위 정범(위원장) 원정 지 원 장운 원해 지성 정운 스님

●사회분과위 대오(위원장) 지홍 중 선 정오 본해 일문 정문 장명 지홍 (비구니) 스님

●재정분과위 성직(위원장) 토진 범 광 종성 종민 자연 원범 현조 향적 정도 보연 적현 혜용 탁연 스님

●호법분과위 초격(위원장) 영관 태 관 초호 정산 덕수 해오 원경 경성 해립 삼해 법보 활종 각림 진화 스님

●법제분과위 무애(위원장) 정목 견 진 성효 지현 태연 구과 현근 스님

노덕현 기자

종책모임 법화회 출범

화엄회 초·재선 14명 참가

조계종 종책연구모임 법화회가 창립했다.

법화회(회장 정범·前 낙산사 주지)는 11월 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 출범을 알렸다.

법화회는 제15대 중앙총회에서 최대 의석(28석)을 확보한 화엄회에서 분리·출발한 종책연구모임이다. 화엄회 소속 해오 성호 덕문 초격 정인 견진 덕수 법정 종민 각립 월공 정오 스님 등 초·재선 중앙총회의원 14 명이 참여했다.

회장 정범 스님은 “종단 안정·화합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비판하고, 화엄회는 물론 보림·무량·무차회 등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일 화엄회(회장 성직)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법화회 창립을 승인했다. 이날 화엄회스님들은 법화회 창립에 대체로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6년만의 결실 실천협 구성기로

“고급승용차 사용 금지”... ‘선원청규’ 봉정법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외제 승용차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행자의 격에 맞는 차량을 사용한다.”

“수행자는 주식, 펀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기나 사행성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나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사형제 폐지운동·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고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원청규>가 6년 여의 작업 끝에 발간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현산)는 11월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선원청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선원청규> 제정을 위해 길어온 굳은 확신과 원력이 실천수행을 통해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은 편찬사에서 “선원청규 제정 발의 후 6년, 편찬위원회가 발족한 지 4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제 어떻게 선원청규를 실천해 수행풍토를 개선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선원청규>는 전국선원수좌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원청규편찬위원회를 주축으로 6년 동안 23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선원청규편찬위원회는 <선원청규> 편찬을 위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전통과 대안을 편찬 원칙으로 삼아 중국 고 청규 11편 중 6편, 일본 고 청규 9편 중 1편을 참고했다.

현대판 청규인 대만 불광사 규칙과 프랑스 플립블리지 비구계 개정관, 가톨릭 베네딕트 수도원 규약 등까지도 참고해 수차례의 연찬을 거쳤다. <선원청규>를 직접 생활에서 적용할 선원대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세미나도 실시했다. 집필은 중국 송대·원대의 <선원청규>(1103년)와 <최수백장청규>(1338년)를 근간으로 이뤄졌다.

<선원청규>는 찬술 의의와 찬술 방향을 다룬 서론과 조계종 종지와 역사, 소의 율장 등을 다룬 1부, 선원 수행 생활 전반과 장례의 및 생명살림 등을 다룬 2부로 나뉘어 기

술됐다.

1부에서는 조계종 <선원청규>의 정체성과 조계종 종지·역사·소의 율장·법계·승가교육 등을 기술했다.

2부에서는 선원의 구성과 체제를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으로 나눠 편찬했다. 기본선원은 일반·총림·특별·시민선원으로 나눠 그 정의와 자격, 직제와 운영, 의무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승가꾸기, 환경교육 등 현대적 보행법, 차량 및 전자용품 등 소유문제를 풀어놓은 수행 생활, 승려 복지대책에 대해 기술한 수행복지, 장기·시신 기증을 권한 생명살림 등 현대 수행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수좌회는 <선원청규>의 정착을 위해 전국 선원장스님들이 참여하는 ‘전국선원 선원청규 실천협의회’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선원장스님들은 실천협의회 활동을 통해 전국 선원에 <선원청규> 보급·시행을 장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선원청규>를 보완해 가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자승 총무원장 상대 당선무효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 속명: 정한영)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성호 스님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재판부가 자승 총무원장의 승적 내용은 다루지 않고 당사자 자격이 아니라고만 판단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인공 총무원장 전횡”

사정원 ‘해임무효’ 판결-총무원 ‘판결무효’

지난 9월 총무원장 불신임안 부결과 총무원장의 원용화합을 골자로 한 담화문 발표로 해소 기미를 보이던 태고종 내 갈등이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인사전횡과 직권남용 의혹으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원회 월운 스님과 강원교구총무원장 백운 스님은 11월 12일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 총무원장을 성토했다.

월운 스님은 “인공 총무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면직시켰다. 중앙사정원에 행정소원을 제출해 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총무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며 전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 스님도 “총무원장이 지방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강원교구총무원장을 면직시킨 것은 월권행위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숨가뺐던 7일

명진 스님, 직영전환 반복하다 봉암사로 떠나

11월 7·8일 명진 스님이 일요법회에서 직영 전환 수용 입장을 반복하고 자승 총무원장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총무원 청사를 찾아 직영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치달았던 총무원과 봉은사간 긴장은 명진 스님이 9일 걸말 하나만 맨 채 문경 봉암사로 떠나며 소강국

면을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의 직영전환을 시행하고 후임 주지로 부주지였던 진화 스님(사진) 임명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직영전환은 확정됐지만 진화 스님이 부주지로 임명되면서 신도회는 시위를 그쳤다.

명진 스님을 반발해 했던 진화 스님의 중앙총회의원 사퇴에 대해 총무원은 또 한번 양보했다. 화쟁위의 겸직을 금하지는 권고



가 있었지만 진화 스님은 중앙총회의원 사표 없이 봉은사의 재산관리인에 임명됐다.

지난 3월 직영전환 지령 후 8개월 만에 봉은사 사태가 끝났다.

하지만 명진 스님이 “직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과제로 두자.” “새 주지 진화 스님을 나를 대하듯 따라 달라”고 한 말을 두고는 이견이 많다.

조동섭 기자

戒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대법회 行

귀의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범망명의 계율을 수지하며 불굴의 승단이 되고져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며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함을 제방에 고합니다.

본종계대화상 초대종정(승황) 멸공滅空 大宗師.

본전계화상(三師) 해동울맥 수진율사. 慧運율사. 正安율사
본종아사리(七證) 용운. 향적. 법전. 법가. 법장. 원명. 정수
법계인례사(十證) 법경. 우암. 홍인. 법룡. 법호. 지원. 용현. 법인. 원현. 법도
봉행위원장 법장. 법계위원장 법가. 봉행위원 (원로위원. 총회의원. 각위원회)
집행위원 (총무원 부장. 국장. 전간부) 홍보대사 (전국사암 680개 말사 주지스님)

■ 행사일자 : 2010년 11월 25일(목) (음. 10. 20) ■ 법회장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88번지 위봉사

■ 문의 : 총무원 ☎ 055)338-0089 / 국장 010-3801-8197 ※전종도 각 15교구원 별도 문의 및 접수바랍니다.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니 마땅히 구족정계를 가지면 능히 여래께서 찬탄하시도다. 승가단체는 율을 행하여 도덕을 지키며 세상의 참 지도자가 됩시다.

종교법인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재단